

2015년 7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15.7.23(목) 15:00~16:30

■ 주요 의견 내용

▲ 심층성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해야

- 7일 자장면이 지난 50년간 184배 오른 것을 비롯하여 서울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기사는 경제현상의 한쪽면만 분석한 것으로 아쉬움이 있음. 60년대 채 80달러가 되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의 1인당 GDP는 지금 3만불을 바라보고 있어 300-400배는 오른 것임. 이러한 수치를 같이 얘기해 주어야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상을 균형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이용우 위원)
- 8일 그리스가 우리나라처럼 구제금융을 받고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 원인으로 통화(유로화) 통합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라는 분석보도가 있었는데, 단편적인 분석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됨. 그리스 사태의 본질은, 포퓰리즘성 연금 및 복지정책과 이를 조달하기 위한 과도한 해외차입 등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고 보임.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해 주었어야 좀더 본질에 가까운 분석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이용우 위원)
- 13일 '출발640' 사법부가 1심과 2심을 강화해서 대법원에 물리는 사건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보도 내용 중 개선방안에서 건의된 내용, 의결된 내용,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혼재되어 시청자에게 혼란을 일으킴. 또한 앞선 개선방안 리포트(디스커버리 제도, 전문가 참여, 법관의 전문화 등)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내용과 우려가 마지막에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나와 보도에 대한 이해도와 집중도를 떨어뜨림(김연화 부위원장)
- 3일 .광고주협회 '나쁜 언론사' 20곳 선정...유력 언론도 포함 내용에서 한국광고주협회가 기업을 대상으로 나쁜 기사를 쓴 후 광고와 협찬을 강요해온 나쁜 언론 20개사를 선정했다는 보도에서 문제된 언론사를 한곳도 밝히지 않아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김용주 위원)
- 22일 험값에 처분된 '대작' 미술품들...왜? 단독보도에서 뉴스 도입부에서 미술품 복제라는 이색 소재로 관객의 시선을 끈 스릴러 영화 '인사동 스캔들'의 일부를 삽입함으로써, 대작 미술품들이 험값에 처분된 이유가 마치 복제된 위작이었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 데스크는 향후 보도의 취지와 인용할 사례가 불일치(위작 vs. 진품, 사기 vs. 횡령)해서 뉴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거나 내용을 왜곡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보도의 정확성을 높여주었으면 함(최진영 위원)

▲ 방송심의기준 고려해 신중히 보도해야

- 19일 '라이브 투데이 2부', 22일 '출발640' 왜소증 40대 세탁기에 빠져 숨진 채 발견, 충북 청주 아파트서 6세 남아 숨진채 발견 보도내용이 나오는 내내 화면에 위성지도로 사고가 난 지역을 표시하고 있었음. 오른쪽 지도화면에 전국지도로 표시를 하였고, '부산시 사하구 A아파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이라는 지역을 공개했음에도 굳이 위성지도에까지 표시를 하여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임. 사건이 아닌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안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김연화 부위원장)
- 3일 비정한 아버지...지적장애 딸 강간, 12일 11세 여동생 상습 성폭행 한 20대 중형 등 인륜을 저버린 가족간의 성폭행 관련 보도내용은 가능한 자제하고, 보도시에는 전문가의 예방책을 함께 보도하면 좋겠음(김용주 위원)
- 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시종 격론 없이 조용하게 진행됐는데 야당에서 모처럼 호평이 나왔고, 도덕적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보도에서 자막은 '호남' 법무장관 후보청문회...野 '호평이라고 마치 장관후보자가 호남 출신이어서 도덕적 결함을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 처럼 보도했음(김용주 위원)
- 10일 오후 1시 새누리당 차기 대권 후보 2인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는데 두 정치인의 지지율은 오차범위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강조함. 두 정치인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에서 처음으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석해서 전달해야 했음.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과학적 해석 없이 단순 수치를 가지고 순위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니 향후 선거보도에서 유의해야 할 것임(양승찬 위원)
- '제자 때리고 인분 먹인 대학 교수', '돈 때문에 동업자 토막 살해', '수원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 등 일련의 사건사고 보도시 CCTV 등을 통해 생생한 화면을 전달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어떤 경우 너무 여과없이 방송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공포감과 불쾌감을 느낄 정도임. 따라서 적절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이용진 위원)
- 10일 '클릭 전국은 지금' 에서 노예각서 폭력 학교서 몰라 1년간 지속 이라는 주제로 보도하면서 인용화면에 일부 학생이 피해 학생을 밀어 쓰러뜨리고, 넘어진 학생을 발로 짓밟는 등 매우 폭력적인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도되었음. 리포트가 길어지면서 해당 장면이 또다시 장시간 노출되었는데 방송심의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제작진에 질문함(최진녕 위원)

▲ 화면구성 및 자막, 부적합 표현 등 개선필요

- 6월 28일 일요일 저녁 '8시 뉴스' 진행자의 뒷배경으로 설치된 모니터가 어수순해보임 화면 정리가 필요해 보임. 6일 '뉴스현장13' 화면 구성 역시 화면을 1/3로 나누어 출연 패널의 설명 장면을 담고 2/3를 자료화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패널 등장 뒷배경이 산만하여 아주 복잡한 배경 영상이었음. 6일 저녁 '7시 뉴스' 여성 앵커 뒷배경으로 사무실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가방을 메고 퇴근하는 듯 한 모습이 나와 나와 어색했음(양승찬 위원)

- 5일 오전 9시 해군참모총장 기소 관련 뉴스에서 뇌물을 전달하면서 자동차 트렁크에 싣는 재연 화면을 사용함. 뉴스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선정적일 수 있는 재연 화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음(양승찬 위원)
- 현장을 연결하여 기자가 상황을 전달할 때 우측 상단 연합뉴스TV 로고 아래 'Live' 표시가 회전하면서 돌고 있는데 이 경우 자료화면을 내 보낼 때는 시청자들이 현장 화면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특히 현장의 상황이 진행되지 않은 기자의 Live 리포트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자료화면에서는 띠자막 위로 자료화면이라는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양승찬 위원)
- 15일 고속도로 상황 방송에서 예) 강릉방향, 인천방향 자막 표시가 고속도로 그림을 벗어나 표기되어 있었음. 출발640 전,중CM시 화면 우측상단 출발640 로고 바로 아래에 붉은 띠자막으로 주요 뉴스 자막을 함께 방송했는데 광고시간이니 만큼 광고주 권익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날씨예보 진행시 화면 우측상단에 큐브로 '현장연결, LIVE' 자막을 안내했는데 날씨예보 화면자체가 외부에서 LIVE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현장연결, LIVE'자막 안내는 불필요 해 보였음. 또한 입간판을 세워 현재와 낮 기온을 예보했는데 CG를 활용했더라면 화면이 더 깔끔해 보였을 것임(성낙용 위원)
- 14일 '고성국의 담담타타' 에서 초반에 진행자가 새누리당 신규 당직자의 이름과 프로필을 설명했지만, 배경으로 나오는 프로필 화면과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시청자입장에서는 방송을 이해하면서 따라가기가 어려웠음(최진영 위원)
- 6월 28일 '뉴스09' 정치관련 보도에서 자막은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없다는 자막이 계속 나와 보도내용과 자막이 불일치함. 6일 "본드에 취해 수업 중인 여교사 추행 40대 구속" 자막은 지나치게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여교사가 본드에 취해 수업 중인 것으로 잘못 전달 될 수 있음(김용주 위원)
- 6일 국회법 재의 투표 관련 자막의 경우, 시점상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직 불참 예정인 상황이었는데 자막은 확정적으로 '불참'으로 제시됨. 특히 빨간색 자막으로 내 보낼 때 띠자막의 문장 구성에 늘 신중했으면 좋겠음(양승찬 위원)

▲ 프로그램편성 및 제작의견

- 대부분의 방송사업자들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편성이 시청자들이 시청이 어려운 시간대인 새벽시간대에 편성하여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의 기회를 보장하고 콘텐츠의 질을 높이 고자하는 도입취지와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연합뉴스TV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바로보는 TV 옴부즈맨'도 시청자들의 시청이 용이하지 못함 시간대에 편성하고 있음. 시청자들의

- 접근이 용이한 시간대에 편성될 수 있도록 향후 개편시 고려가 되었으면 함(성낙용 위원)
- 22일 '투나잇23'에서 이희호 여사 평양방문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이어서 '북한은 오늘 재방송'에서 동일한 내용이 방송 됐음. 다른 두 프로그램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함(강대인 위원장)
 - 6월 28일 '삼풍 붕괴 20년..안전불감증 여전' 기사에서 1995. 6. 29일 500여명이 숨지고 1,000여명이 다친 대참사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고 그 이후 화성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마우나 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까지 대형 사고는 계속 반복됐는데 대형사고 때 마다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정책들... 지금 시점에 정부가 쏟아낸 정책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심층 보도 등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성낙용 위원)
 - 10일 그리스 고강도 개혁안 제출...협상 물꼬트나 기사에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재정의 주요 사항인 연금 지급삭감, 부가세 및 법인세 인상 등을 치프라스 총리가 제시한 개혁안과 비교하여 CG로 정리하여 주었더라면 더 알찬기사가 되었을 것임(성낙용 위원)
 - 11일 최근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해 리뷰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꼭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로 생각됨. 차제에 이러한 규제들을 발굴해서 개선토록 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시리즈를 편성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고 싶음(이용우 위원)
 - 18일 지난해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보다 더 벌어져 21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보도는 북한과 달리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다음 달이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지난 70년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래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저력으로 앞으로 70년간 세계속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특집편성이 필요함(이용우 위원)
 - 13일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조림사업에 나섰다는 보도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사회공헌 사업에도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바람직한 보도임.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으므로 각종 사건사고 및 사회의 부조리를 비추는 언론의 소명 못지않게 음지에서 사회를 밝히는 미담도 적극적으로 밝히는 노력이 필요함(이용우 위원)
 - 1일 발생한 우리나라 연수공무원 중국에서 사고로 10명 사망한 뉴스를 당일 속보 등으로 긴급히 전달했음. 그런데 이들이 지난 3일 새벽 '모닝Y' 5시30분경 보도에서는 기자도 '어제 발생한 사고'라면서 시청자들이 사건발생 날짜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물론, 뉴스 내용도 마치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한 것 처럼 팩트 중심의 보도를 하는 것은 시간상 적합하지 않은 보도라 생각됨. 최소한 이들이나 지난 사고를 전달하는 방식은 사건상황만 보도될 것이 아니라 이틀간 진행

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보도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됨(이용진 위원)

- 2015년도 세계과학정상위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데 OECD를 비롯해서 60여개국이 참석하고 글로벌 CEO들도 많이 참석함. 기획보도를 해보면 좋을 것(이헌규 위원)
- 오전 8시에 방송하는 '라이브 투데이'에 일간신문 기사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이 코너는 예전의 "미디어 토크"이라는 코너와 유사한 것 같음. 종합편성채널은 신문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 신문 기사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연합뉴스TV가 자신들이 취재한 뉴스를 보내기 보다 일간신문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꼭 필요한 기사가 아니면 일간신문 기사를 전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프로그램 개편시 고려할 사항

- 북한은 오늘이라는 어법이 맞는것인지 의문임. 어법상 오늘의 북한이라던지...조금 자연스럽지 못함. 프로그램 개편시 제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며, 프로그램명도 지나치게 영어가 많이 사용되 내부적으로 고민해 봐야 함(강대인 위원장)
- '기업비사'라는 프로그램 제목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함. <비사>라는 표현보다 좀 더 긍정적인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음(최현철 위원)
- 오전 8시에 방송하는 '라이브 투데이'에 주요 이슈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들어보는 '오늘 생각'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코너에서는 주요 이슈에 대해 시민이 전달하는 이야기는 천편일률적이고, 신선하지도 않다고 생각함. 이 코너의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당한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길 바람.
- 채널명 관련 채널명이 뉴스Y에서 연합뉴스TV로 바뀌었는데 모닝Y는 여전히 Y를 연상시키므로 프로그램명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 함.

▲ 출연자 관련 의견 및 긍정적 평가

- 22일 '북한은 오늘' 진행 앵커가 출연자인 북한 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요즘 상영하고 있는 연평해전을 보셨냐며 본인은 아직 못봤다는 발언은 적절치 않았음(강대인 위원장)
- 8일 모닝Y '스포츠 와이드'에서는 프로야구 구단들의 요일별 징크스를 기획 보도했는데 전날 경기 승패나 기록만 보도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종합해 기획 보도를 함으로써 재미를 주었음(김연화 부위원장)
- 6일 뉴스워치에서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연예인 법적대응'이라는 주제로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부쩍 늘어난 악성 댓글과 근거 없는 소문들로 인해 연예인들이 더 이상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찾고 있다는 보도는 시청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보도이었다고 판단됨(김연화 부위원장)

- 16일 출발640에서는 태풍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태풍 냥카 피해 줄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이전의 볼라벤이나 덴빈의 피해를 들어가며 태풍 피해 예방을 보도해준 것은 시의 적절했다고 봄(김연화 부위원장)
- 뉴스현장 3D프린트기술 관련 내용에서 실제 개발자와 사용자의 반응을 실감있게 보도해서 매우 우수한 보도사례라고 판단됨(이헌규 위원)
-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방송하는 '기업비사'는 기업을 일군 인물뿐 아니라 당시 기업환경과 국내외 정치-경제 사정 등 잘 모르는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음(최현철 위원)

▲ 기타 의견

- 화면 왼쪽 하단에 들어가는 연합뉴스TV 로고에 시간이 고지 되고 있는데 시청자에게 서비스하는 의미로 날짜와 요일도 함께 추가해준다면 좋을 것(강대인 위원장)
- 15일 '고성국의 담담타타'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다시보기 영상 하단에 토론내용 없이 질문내용만 기재되어있음. 타 방송사의 토론형식 방송의 경우 토론내용 및 토론자 발언록을 첨부해서 제공하고 있어 시청자에게 풍부한 정보제공을 비롯해 정보이용 편리성을 주고 있으므로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있음(김연화 부위원장)
- 시청자위원회 의견은 소비자의 의견을 방송에 반영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임원들께서 참여하셔서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담당 국장이 분기별로라도 참석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함(김연화 부위원장). (끝)